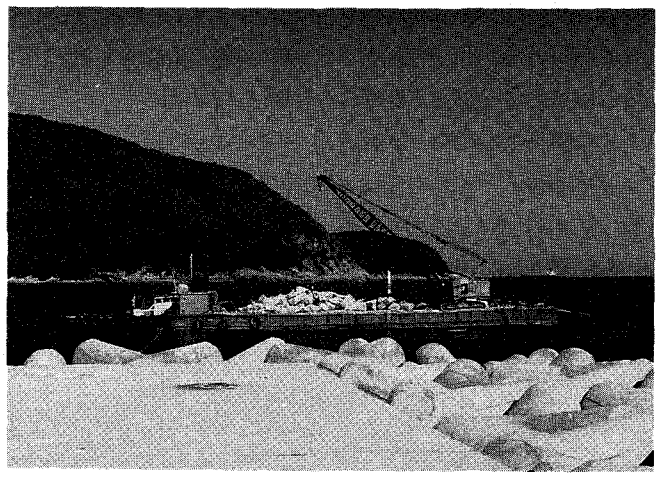
천혜의 지세포항

레미콘 해상예인 최대난점

배후시설로 지역발전 도모해야

박 두 윤
〈성보건설산업(주) 현장소장〉



지세포항 하면 나는 먼저 불교에서 말하는 이른바 '인연'이란 두 글자를 머리속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세포항이 수산청 제3종 어항으로 지정받아 처음으로 개발되던 1973년 당시, 혈기왕성한 젊음 하나만을 무기로 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공사에 뛰어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20년이 흐른 지금, 또다시 지세포항 개발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어찌 '인연'이란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으랴.

지세포항은 경남 거제군 일운면 지세포리에 자리잡은 수산청 제3종 어항이다. 앞서 말했지만 1971년 제3종 어항으로 지정, 개발된 이후 20년이 흐른 지난 1990년대부터 또다시 본격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천혜의 어항이다.

여기서 '천혜'란 말을 쓴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 273만㎡나 되는 막대한 항내 수면적과 120만㎡나 되는 정온 수면적은 천혜의 항세란 말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수면적이라면 10톤급 어선 3,000척쯤은 능히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대피항으로서 필요 충분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나 할까.

게다가 지세포항의 위치가 남해안 청정해역에 자리잡고 있어서 주어종인 멸치를 비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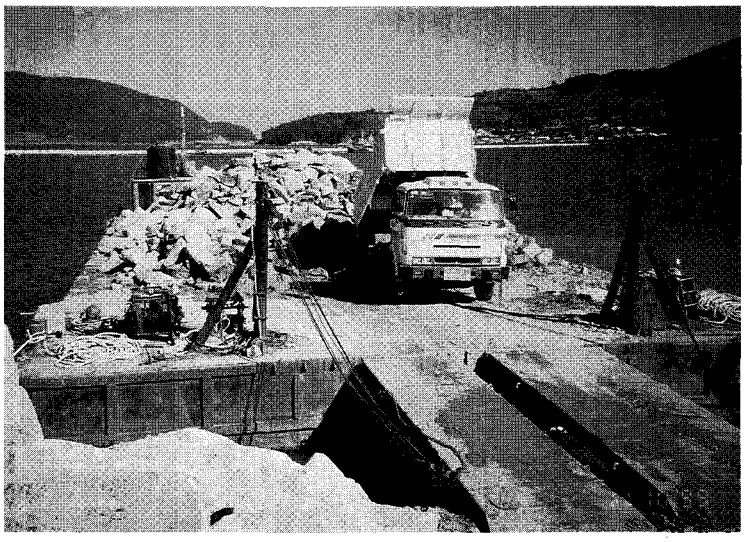
하여 광어, 참돔, 삼치, 갈치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어종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남해안의 그 어느 어항보다 대규모 어업전진기지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한 편이다.

그러나 현재의 어항 현황을 보면 지극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태풍이나 기상이 악화됐을 때는 최고 250여척의 외래어선이 모여들기도 하지만 대체로 하루 평균 외래어선의 내항수는 15척 이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세포항의 항세에 비하면 어선의 이용률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선 기본시설이 지극히 미비한 편이다. 당장 지세포항 연근해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마땅히 위판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어쩔 수 없이 마산이나 멀리 부산까지 싣고가 위판을 해야만 한다.

수산물의 가격은 잘 알려진 것처럼 선도가 좌우한다. 따라서 마산이나 부산까지 위판을 하다 보면 선도도 선도려니와 출어 경비와 각종 경비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꼴이라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적절한 소득을 올리기가 어려울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나는 지세포항이 앞으로 더욱 많은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타당성을 여기서 찾고 싶다.

지세포항의 천연적인 위치를 십분 활용하여 각종 선수품 보급시설 및 어선 수리시설 등을 갖추고 위판시설을 완비한다면 이 일대에서 가장 훌륭한 어항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산물 가공공장과 판매장 등을 유치하고, 지세포항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해 있음을 감안, 관광산업을 부업사업으로 추진하다면 어민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야기가 잠시 빗나갔지만 지세포항 건설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머리속에 떠오르는 것은 콘크리트 타설이다.

대부분의 어항공사 현장이 겪는 어려움이겠지만 변변한 작업 진입로가 없는 까닭에 당하는 고통이란 말로 이루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서방파제 상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는 레미콘 트럭을 일일이 바지선에 싣고 해상으로 예인해야만 했다. 1,500톤급 바지선에 6~7대의 레미콘을 싣고 40여분을 항해한 뒤 현장에 타설을 끝내고 돌아오려면 대체로 5~6시간이 소요된다.

어느 레미콘 회사가 한꺼번에 6~7대의 레미콘 차량을 동시에 5~6시간씩 묶어두려고 하겠는가. 회사는 회사대로

손해가 막심하다면서 레미콘 출하를 거절하고, 레미콘 기사들은 기사들대로 운행을 버티는 바람에 눈앞이 캄캄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새해인 1995년엔 또다시 서방파제 93m축조를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아득해 온다. 그러나 어쩌랴, 이것이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일익이 된다면 이보다 더 힘든 일일지라도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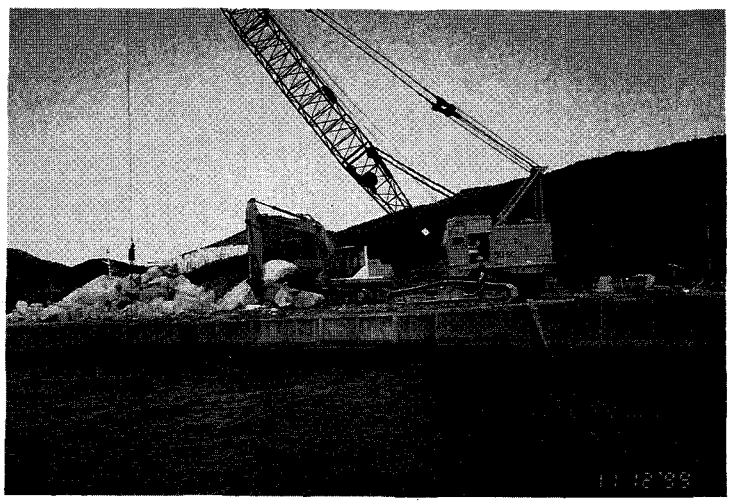
또 한가지 지세포항 공사의 어려움은 석산개발이다. 어느 어항 건설이나 석산개발은 가장 큰 공사의 현안이겠지만 특히 지세포항은 그 정도가 심각했다.

약 2㎞쯤 떨어진 곳에 적출장이 있긴 했지만 육상 작업 진입로가 없는 관계로 모든 자재 보급은 배를 이용해야만 했다. 석산개발이 제대로 안돼 자재의 적기공급이 어려운데다 이를 해상으로 운반하자니 더더욱 어려웠다.

그 이유는 남해안 특유의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이었다. 모든 자재 공급과 작업 시간을 조수에 맞춰 해야 하니 무엇 하나 삐그덕 하고 어긋나면 그날 공사는 헛일이 되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맞춰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민들의 소중한 삶과 꿈이 담긴 어항을 아무렇게나 부실하게 공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그저 속만 바짝바짝 탈 뿐이었다.

가장 악몽같이 기억에 남는 것은 1990년 방파제 상치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이다. 아파트 공사 붐과 함께 극심한 자재파동으로 레미콘값이 금값보다 귀한 시절, 레미콘회사가 선뜻 어항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해줄 리 만무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기억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가느다랗게 줄만 닿는다면 이를 핑계로 안면몰수하고 찾아다니며 부탁하고, 매달리던 그때의 모습이 이제는 추억처럼 느껴진다.

이런 와중에서도 가장 고마운 것은 일운면 어촌계 어민들과 지세포항 인근 주민들이다. 만약 이들 어민이나 주민들마저 우리를 외면했다면 어쩌면 공사가 중단되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잘 알다시피 어항공사란 곧 사석 투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어항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무수히 사석들을 실은 차량이 통행해야 한다.

그러나 어디 번듯한 통행로가 있겠는가. 능로와 산길 뿐인 이곳을 사석 차량이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각까지 종일 누비고 다녀야만 했으니 이로 인한 분진과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은 엄청났으리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온종일 살수차량을

동원하여 물을 뿌리고 다녔지만 그게 주민들께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했을 것임은 너무도 당연하다.

오직 한가지 이유, 지세포항 건설이 곧 지역개발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깊은 협조와 이해를 해주고 있는 주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싶다.

한편 해마다 6월이 되면 남해어항사무소에서 태풍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공문이 쇄도한다. 또한 현장 감독관의 피해 예방 철저를 위한 지시와 안전조치에 짜증이 날때도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태풍이 지나가고 걱정스런 마음으로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이러한 부단한 예방조치로 피해가 경미하게 끝나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속으로 새삼스러운 감사를 수없이 했다.

항상 안전사고나 각종 태풍피해는 막연히 괜찮겠지 하는 방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현장 경험을 통해 느끼면서도 어느 순간 망각할 때가 있으니 아직도 나는 어항인으로서 더욱 정진해야 할 부분이 많은가 보다.

어쨌든 지세포항은 1993년까지 파제제 450m를 완공하여 아쉬운대로 태풍이나 폭풍시 연근해 어선들의 대피항구실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파제제만으로는 항내파 안정효과 면적이 작기 때문에 1993년에 서쪽 방파제 90m를 시공했고, 1994년 다시 하부 84m를 시공했다.

이제 지세포항이 남겨 두고 있는 공사는 서방파제 93m, 상부 117m와 물양장 512m, 상부 104m, 선양장 30m, 그리고 준설 4만5,000m³등이다.

공사 금액으로 쳐도 100억원이 훨씬 넘는 적잖은 물량이지만 현재의 공정으로 볼때 정말 지독히 어려운 시절은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느껴진다. 그러고보니 완공후 눈부시게 발전할 이 지역의 모습이 새삼 머리에 떠올라 가슴 뿌듯하다.

인구 4,500여명의 적지않은 어촌이면서도 85척에 불과한 지원 어선세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세한 이 지역 수산업이 지세포항이 완공됨으로써 새로운 어촌으로 탈바꿈할 계기를 맞게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세포항은 남해안의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어 가족들과의 생활권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현장 사무소 한 귀퉁이에 짐을 풀어놓으면 1년에 2~3번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생이별이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를 놓치게 되는 것이 너무 아쉽기만 하다.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가 극성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득히 그 소리가 그리워지는 것은 웬일일까.

그런 까닭인지는 몰라도 언제부턴가 총각 사원들의 근무기피지 0순위에 지세포항이 올라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한편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한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항인이다. 우리 뒤엔 어민들의 생계와 우리나라 수산업의 장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까짓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 근무하면서 어민들의 진한 삶과 부딪쳐 보는 것도 인생의 큰 수확일 것이며, 그립고 미운 사람들과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그들에 대해 새삼 고마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면 이 또한 행복이 아니겠는가.